

[기획 논문]

전북 부안 문학공간 연구

A Study on the literary space of Buan, Jeolabuk-do

임수경

(단국대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 례

- | | |
|-----------------------|------------------------|
| 1. 서론 | 4. 시사(詩社)의 격조가 남아있는 공간 |
| 2. 자연해택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공간 | - 부안읍·변산면 일대 |
| - 변산반도 일대 | 1) 부안읍 선은리 2) 변산면 대항리 |
| 1) 변산반도 2) 산내면 격포리 | 3) 부안읍 봉덕리 |
| 3. 내생에 소생을 꿈꾸게 하는 공간 | 5. 결론을 대신하여 |
| - 석포리 내소사 일대 | |

1. 서론

모든 문학작품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창조해 내는 사람의 삶도,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삶 역시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에 반(反)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작품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그 자체도 삶과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어떠한 삶도 존재할' ¹⁾ 수 없듯, 작품 역시 그러하다는 존재조건도 가능하다. 문학작품과 삶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²⁾을 감안할

1)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p.9.

2) '문학이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삶이 시간과 공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학공간을 답사하고 그 속에 담김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은 문학의 역동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김수복, 「문학공간답사와 문학교육」, 김수복 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p.63 참고.

때, 문학작품과 관련된 그 어떤 시간과 공간도 그 문학을 수용하고 즐기는 향유자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21세기 문학향유자(공급자와 수요자 포함)는 문학작품을 일차적인 문자텍스트로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다. 문학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고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와 있을 법한 사건을 전개하면서 공감각적이고 입체적인 텍스트로 전달받는다.³⁾ 즉, 문학작품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활동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신활동을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문학작품에서 보여지는 언어활동은 '작가의 의식적 검열'⁴⁾을 통하여 발현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학작가들의 이러한 언어활동이 독자들의 정신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 문학의 공급·수요자들은 의식적든 무의식적이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간과 공간이 제시된다면 그 정신활동의 확장은 훨씬 더 공감을 얻으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즉, 일제강점기 실재명동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시대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군산의 모습을 지명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써넣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를 읽으면서 작품에 보여지는 당시 사회상을 통해 역사가 보여주는 것 이상의, 그 시대의 모습을 쉽고 더 자세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장소의 특징을 문학작품의 공간에 반영하면서 그 장소만의 독특한 공간성을 창출해 내고, 그 공간성을 통해 공간이 함축하고 있는 더 이상의 것을 상징화되면서 독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일차적인 언어활동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다차적인 정신활동으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전제로, 전라북도 부안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작가와 문학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바다와 산, 내륙과 외륙의 독특한 조화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부안군은 그 모습만큼이나 다채

3) 최혜실의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문화과지성사, 1999)에는 이러한 변화양상을 '디지털의 시대에 하이퍼텍스트상에서 다시 새로운 표현의 방식을 획득'이라고 하면서, 문자로 한정되는 언어활동의 범위에 있는 문학의 다체널적인 변형을 확인하고 있다.

4) 안남일, 『기억과 공간의 소설 현상학』, 나남출판사, 2004, p.15.

롭고 굴곡이 많은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아있어서인지, 많은 문인들의 작품 소재가 되곤 했다. 그 문학공간과 주요문인을 기준으로 부안군을 세 가지의 공간성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2. 자연혜택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공간

- 변산반도 일대

1) 변산반도

배낭하나 짊어지고 변산반도를 찾아 부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바다보다도 넓은 들녘을 지나면 변산과 줄포만 곁사 바다가 있는 곳, 아직도 고찰의 풍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내소사와 개암사, 격포의 채석강과 적벽강, 그리고 「만계수록」을 남긴 유형원과, 매창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있는 곳, 그리고 부안이 낳은 서정적 목가시인 신석정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 체취라고 말을 양 돌아다녔습니다.



▲ '들녘을 지나면 변산과 줄포만 곁사 바다가 있는' 변산반도의 전경이다.

- 배준석, 「구름을 두드리다」⁵⁾ 일부

부안군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한다. 평야와 산지와 해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안군은 년 기온차가 크고, 연강수량도 많아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보다 사철 다른 풍광을 연출해 내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배준석의 수필은 호남평야와 변산의 산악 지역, 그리고 서해가 만들어내는 부안 특유의 해안풍광을 표현하고 있다.

내륙쪽으로는 산과 평야를 가지고, 외륙쪽으로는 갯벌과 바다를 동시에 가

5) 배준석, 『구름을 두드리다』, 문학관, 2002. p.81.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5호



▲ 변산의 갯벌에서는 갯벌체험, 갯벌배구, 조개잡이 등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지고 있는 부안은, 예로부터 들판에선 농사를 짓고 앞바다에선 그물질을 하는 '반농반어'의 대표적인 고장⁶⁾이라고 했다. 그 중 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변산반도는 부안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천혜의 자연혜택이 있는 곳으로 꼽혔다. 대웅전의 꽃살문과 어른 세 명이 팔을 벌려야 두를 수 있는 고목들이 유명한 내소사와 조용한 은둔자의 모습을

을 한 개암사, 사철 장관을 만들어내는 채석강과 적벽강, 또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부안 곳곳의 장소는 그곳에 머무는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연하게 이 곳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은 이러한 자연공간과 상당히 닮아있다.

부안의 대표 시인 중 하나인 정양의 시 「개펄」에서는 변산 일대의 공간이 주는 자연혜택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사람살이를 묘사하고 있다.

사람살이에 가장 요긴한 것들을
하늘은 애당초 혼전만전 차려 놓았다고 하거니와
햇빛이나 땅덩이나 물이나 공기도 물론 그렇거니와
땅에서 나는 풀 중에서도 이 세상에
혼전만전 자라서 혼전만전 번지는 쭉쭉이
사람 몸에 제일로 좋다고 하거니와,
잡아도 잡아도 혼전만전 잡히는 개펄의 그 바지락이
아닌게아니라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눈도 밝아지고
정력에도 좋고 술독 푸는 데도 그만이라고들 한다.

- 정양, 「개펄냄새」⁷⁾ 일부

6) 전북문화지도 간행위원회, 『땅은 바다를 안고』, 동방미디어, 2004, p.221.

7) 정양, 「개펄냄새」, 《현대문학》 558호, 2001.6, p.244.

삶은 자연 속에서 생겨나며 자연에서 다시 삶으로 전해진다. ‘하늘이, 땅이, 물이, 공기가 혼전만전 차려놓은’ 자연은 사실 ‘사람살이에 가장 요긴한 것’이다. 어찌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땅에서 나는 풀도 사람 몸에 좋다고 하거니와’ 정작 그 ‘풀’이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이 마음이 부안군 변산 일대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바람의 모퉁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바람이 많고, 육지의 끝에서 펼쳐지는 광활한 바다로 이어지는 부안의 곳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산재해 있다. 특히 변산반도 일대는 기름진 토지에 농사도 잘 되고, 해안을 접해 있으므로 바다와 개펄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는 그야말로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눈도 밝아지고 정력에도 좋”아 역시 삶과는 떨어질 수 없는 자연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및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관광 광지로써의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장소이므로 그 공간의 의미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안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변산은 예로부터 능가산, 영주산, 봉래산 등으로 불리며,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혔다. 내륙 쪽에서 바라보이는 내변산으로, 바깥 바다 쪽에서 바라보이는 외변산으로, 같은 산인데도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만큼 그 안팎의 모습이 상당히 다른, 부안의 특색을 함축해 놓은 듯한 산이다.

변산에서 격포로 가기 위해 해안쪽으로 나가면 전국에서 해안과 가장 가까운 도로인 ‘현화로’에 바로 맞닿아있는 모항을 만날 수 있다. 마치 바다와 육지가 한몸으로 영겨 잔잔히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항의 분위기를, 시인 안도현은 시 「모항 가는 길」에서 표현하고 있다.

모항에 도착하면
바다를 껴안고 하룻밤 잘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너는 물어 오겠지
아니, 몸에도 마음을 비벼 넣어 쉬는 그런 것을
꼭 누가 시시콜콜 가르쳐 줘야 아냐?



▲ '파도소리에 묻혀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적막'한 모항의 전경이다.

걱정하지마, 모항이 보이는 길 위에 서기만 하면
이미 모항이 네 몸 속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

- 안도현, 「모항 가는 길」⁸⁾ 일부

모항 앞에 서면 이미 바다와 몸은 하나가 된다. '꼭 누가 시시콜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모항이 몸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시인의 느낌은 모항의 공간성이 만들어내는

상징 안에 포함된다. '현화로는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 그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다와의 물리적 거리가 타 도로에 비해 가깝다. 해가 지는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풍광 또한 타 도로에 비해 운치 있고 남다르다. 거세게 움직이는 동해의 모습과도 다르고, 섬들이 많아 분주한 남해의 모습과도 다르다. 잔잔한 파도에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풍광은 서서히 석양을 뒤로 모습을 감춘다. 그런 공간속에서 서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모습을 잃고 그 자연에 동화되지 않을까.

시인 박형진은 이러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모습을 모항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로 묶어내었다. 『모항 막걸리집의 안주는 사람 씹는 맛이네』(디새집)이라는 책을 펴내 소소한 일상사와 자연의 위대함을 견주어, 도시로 떠나가 비어가는 모항과 여전히 온화하고 인심이 넘치는 모항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떨아, 모두 다 잠든 밤에 너와 나 둘이서 수평선 위로 스러질 듯 스러질 듯 초생달이 막 지는 바닷가에 서 있노라니 이 세상의 온갖 아우성인 양 파도소리만 천지간에 가득 찬 것도 같고 그 소리에 묻혀 그 소리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적막만이 너와 나를 감싸는구나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지친 내 등어리에서 새처럼 파닥파닥 떨며 느껴우는 너를 업고서 너의 작은 가슴에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초생달은 지고 으르렁거리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끼질 듯 이어지는 등대불만 홀로 내 마음인 양하

8)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1993, p.21.

다 딸아, 이제 그만 느껴울고 돌아가 가슴속에 저 등대불 하나 묻고 잠들지 않겠느냐
너와 나의 가슴속에 등대불 하나 꺼지지 않는 한 아파 피 흐를지라도 세상을 이 세상
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 딸아.

- 박형진, 「상처」⁹⁾ 전문

시인 박형진은 변산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듯 없는 듯 속해있는 모항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한 번도 모항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변산 토박이 시인¹⁰⁾이다. 그에게 이 일대는 삶의 터전이자 생활이고,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 쓰여질 그의 문학에 있어서 문학정신의 원형이 되고 있다. '세상의 온갖 아우성도 파도소리에 묻혀 그 소리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적막'은, 내소사나 격포항이 가진 탈속(脫俗)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부안 전체의 공간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바라보는 관점, 느끼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그 경관이 바뀐다는 서해안의 최고 절경인 변산반도는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삶에서나 자연에게서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공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으로도 유명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은 1971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8년에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관리되고 있다.

2) 산내면 격포리

모항에서 '현화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둘러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격포리의 적벽강과 채석강은, 변산반도의 절경으로 유명하다. 적벽강은 변산반도 중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격포



▲ 붉은 색을 띠는 높은 절벽과 바다색이 절경을 이루는 변산의 적벽강이다.

9) 박형진, 『바구니 속 감자깍은 시들어가고』, 창작과비평사, 1994, p.127.

10) 전북문화지도 간행위원회, 『땅은 바다를 안고』, 동방미디어, 2004, p.212.

리부터 그 오른쪽 용두산을 감싸는 약 2km의 해안선을 일컫는 이름이다. 붉은 색을 띠는 높은 절벽과 바다의 푸른색이 보색대비를 이루고, 특히 낙조에는 더욱 절경을 이룬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시인 소식(소동파)이 놀았던 적벽강에 비유되어 뒤지지 않을 정도라 하여, 부안인들의 자부심으로 적벽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적벽강과 연이어 격포항에서 오른쪽 닭이봉 일대를 채석강이라고 한다. 그 안에 있는 층암절벽과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채석강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의 침식을 받아 절벽이 마치 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기이한 절경은 당나라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빠져죽었다는 채석강과 비슷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이름의 유래를 빗대어 우리나라 봉산탈춤의 미알할미마당에서 노래로 불러졌다.

기산 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따라갔나. 채석강 명월야에 이적선 따라갔나, 적벽강 추야월에 소동파 따라갔나.

- 봉산탈춤, 「미알할미마당」¹¹⁾ 일부



▲ 절벽이 마치 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채석강이다.

퇴적암 지층인 이곳은 오랜 세월 파도가 드나들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형태의 절벽과 해식 동굴은 이곳을 더욱 기이하게 만들었다. 특히 썰물이 되었을 때 해안을 따라 걸으며 보게 되는 낙조는 서해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환상적인 풍광을 연출해 낸다. 격포리의 이런

11) 봉산탈춤은 총 7마당으로 구성 되어있고, 전 마당은 가난한 삶과 양반에 대한 풍자, 과거승에 대한 풍자, 혹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횡포 등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그들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그 중 미알할미마당은 봉산탈춤의 마지막 마당으로, 영감과 미알할미, 그리고 영감의 애첩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탈춤은 할미가 경험하게 되는 일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때는 난리가 일어난 시대이다. 난리통에 영감을 찾아 나선 미알할미, 할미는 갖은 고생을 하며 영감을 찾게 된다. 반가운 정회를 미처 나누기도 전, 할미는 이미 영감에게 돌머리집이라는 애첩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미알할미의 모습은 난리통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비참하다. 영감을 두고 할미와 돌머리집은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영감의 실수로 할미는 맞아죽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기이하고 현실감 없는 느낌은 이순원의 소설 「은비령」에서 주인공이 과거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떠나가는 공간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처음엔 그를 찾아 격포로 떠날 생각이었다. 아직도 그의 혼이 그곳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지 몰랐다.(……) 그곳 가까이 있는 내소사와 선운사 역시 나는 둘러보고 오게 될 것이다. 격포에 가서도 다 녹이지 못한 소금 짐과 또 그곳에서 새롭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앓을 그 무엇을 채석강에 가 마저 녹이고 싶었던 것이고, 내소사와 선운사에서 바람에 씻어버리듯 씻고 싶었던 것이었다.

- 이순원, 「은비령」¹²⁾ 일부

소설 「은비령」은 서해로 바다낚시를 간 관료들이 돌풍을 만나 전원 익사한 실제 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격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고로 죽은 남자의 아내와, 그 남자의 옛날 친구가 엮어나가는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옛날 친구는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부안의 격포, 채석강과 내소사에서 씻어내고자 한다. 이름의 어원처럼 중국에서 흐르고 있는 강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해안을 지칭하는 적벽강과 채석강은, 세상과는 별개로 떨어진 관조의 공간이자 이상세계의 공간으로 비유되고 있다. 미알할미마당에서도 애첩에게 간 영감의 소재를 격포리로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 적벽강과 채석강 일대는 변산 해안의 절경으로 꼽힌다.

채석강의 장서는 읽지 않아도 되겠다
긴 해안을 이룬 바위벼랑에
격랑과 고요의 자국 차곡차곡 쌓였는데
중의 기원에서 소멸까지
하늘과 바다가 전폭 몸 섞는 일, 그 바닥 모를 기쁨에 대해

12) 이순원, 『은비령』, 생각의 나무, 2005. p.164.

지금도 계속 저술되고 있는 것인지

- 문인수, 『바다책, 채석강』¹³⁾ 일부

왜 채석강변에 사는지 묻지 말아라
나는 지금 만 권의 책을 쌓아 놓고 글을 읽는다
만 권의 책, 파도가 와서 핏고 절벽의 단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
(.....)

그대여, 서해에 와서 지는 낙조를 보고 울기 전엔
왜 나 채석강변에 사는지 묻지 말아라.

- 송수권, 『여름 낙조』¹⁴⁾ 일부

예전에는 전라도에서 풍류를 읊기 위해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인은 말한다. '서해에 와서 지는 낙조를 보고 울기 전에 채석강변에서 왜 사는지 묻지 말'라고. 자연이 만들어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혹은 자신의 모습을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작품이 쓰여졌던 것도 낮은 일이 아니다. 마치 이곳에서 함께한 문인들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한 적벽강과 격포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 2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역사적인 고증을 철저히 거쳐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했다.

벽산면 격포리에는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총 4만 5천평 규모의 영상단지, 2002년 (주)KBS아트비전이 출자한 (주)TMW와 전라북도 및 부안군이 공동으로 제작한 사극 세트장이다. 이곳에서 영화

13) 문인수, 『쉬』, 문학동네, 2006. p.32.

14) 송수권, 『별 아래 잠든 시인』, 문학사상사, 2001. p.41.

〈왕의 남자〉, 〈한반도〉 등을 비롯하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최근 2008년 상반기에는 〈이산〉까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문세트장이다. 각종 편의시설과 유락시설이 겸비되어 부안군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반계 유형원 유적지는 우동리의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고장 전경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안면 우동리에 있는

반계 유형원 유적지는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유형원이 일생동안 학문을 탐구하던 곳이다. 유형원은 효종 4년(1653년)에 이곳 우동리로 이사하여 그 이후 타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학문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반계수록』이 있고, 그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유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 2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는 우동리의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유명하다.

3. 내생에 소생을 꿈꾸게 하는 공간

- 석포리 내소사 일대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한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해구 두타스님의 원력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변산의 사찰 중 하나인 내소사는, 오랜 세월동안 창건된 모습을 이어나가다가 임진왜란 때 내소사 내 사찰인 소소래사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어, 조선 인조 때부터 다시 중



▲ 내소사는 '한 평생 시끄러운 인간 세상 꿈도 꾸지 않을 것 같이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다.'

건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래사라고 불렀던 내소사의 현재 모습은 예전 소소래사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한다.

적막한 옛길에 솔뿌리 엉겼는데
하늘 가까워 두우성 만질 듯
뜬 구름인 양 흐르는 물인 양 절에 이르니
단풍과 푸른 이끼 어울어졌는데 스님은 문을 닫고 있구나
가을 바람 서늘히 석양녘에 불고
산의 달은 점점 밝아오니 잔나비 울음소리 맑게 들리네
기이하구나 눈썹 짙은 한 노승
한 평생 시끄러운 인간 세상 꿈도 꾸지 않네

- 정지상, 「제변산소래사」¹⁵⁾ 전문



▲ 주위가 조용하고 평온하여 가을 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전나무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은 내소사를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상의 세계로 꾸미기에 적절하다. 정지상의 시 「제변산소래사」는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으로, 내소사로 가는 길은 ‘하늘이 가까워 뜬 구름인양 흐르는 물처럼’ 점점 자연과 합일이 되어 속세의 찌든 때를 씻어내는

길로 적절하다. 모험은 바다와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면, 내소사는 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의 문신이면서 고려의 12시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시에 뛰어난 정지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내소사를 “시끄러운 인간 세상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동떨어진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15) 전북문화지도 간행위원회, 『땅은 바다를 안고』, 동방미디어, 2004.

범궁이 산모퉁이에 의지했는데
 석양에 누각이 열려있구나
 중은 샘 줄기를 찾아가는데
 학은 차씨의 김이 나는 것을 회피하는구나
 절은 오래되어 술은 천길이나 자랐고
 산은 깊어 한 무더기
 말 물어 볼 만한 이 없어
 뜰 가에 나 홀로 서성이네

- 김시습, 「내소사」¹⁶⁾ 전문

조선 전기 학자인 김시습은 유불정신을 포괄하여 폭넓은 사상가로 유명하고, 그의 탁월한 문장력 또한 그 일세를 풍미하였다. 최초 한문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을 지으면서 한문소설의 효시를 세웠고, 『산거백영(山居百詠)』을 썼다.¹⁷⁾ 김시습이 본 내소사 역시 “절은 오래되어 술은 천길이나 자랐고, 산은 깊어 한 무더기 말 물어 볼 만한 이” 조차 찾을 수



▲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내소사 대웅보존의 모습이다.

없을 정도로 세상과 떨어져 삶을 관조하고 사색하기에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택이 시 「내소사 가는 길」에서 표현한 것처럼, “산을 넘고 들을 지나/또 산을 넘어/아무리 달려가도/저 꽃산 눈 감고/둥둥 떠가다(……)/꿈 깨었네”로 꿈꾸듯 깊고 아득한 공간이 바로 내소사이다.

16) 전북문화지도 간행위원회, 위의 책.

17) 전기의 학자인 김시습은 유·불 정신을 아울러 국토산하의 아름다움을 탁월한 문장으로 표현해 내는 시조시인이다.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고, 『산거백영(山居百詠)』(1948)을 썼다. 한문소설집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樓瀟記)』, 『이생규장전(李生鏡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등 5편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김시습이 쓴 것은 아니라고도 한다. 중국의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 작품은 비록 한문으로 쓰여졌지만, 한국소설이라는 문학양식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자연과 어우러진 내소사의 전경이다.

내소사는 특히 관음조가 단청을 했다는 전설을 가진 대웅보전이 자랑할 만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대웅전의 전설은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시 「내소사 대웅전 단청」을 보면 알 수 있다.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은 사람의 힘으로도 새의 힘으로도 호랑이의 힘으로도 호랑이의 힘으로도 칠하다가 칠하다가 아무래도 힘이 모자라 다 못 칠하고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다.(……)

중들은 이곳 사투리로 그 호랑이를 동문 대우를 해서 불려됐지만 영 그만이어서, 할 수 없이 그럼 내생(來生)에나 소생(蘇生)하라고 이 절 이름을 내소사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 단청하다가 미처 다 못한 그 빈 공백을 행하 벌써 여러 백년의 아침과 저녁마다 절하고 또 절하고 내려오고만 있는 것이다.

- 서정주, 「내소사 대웅전 단청」¹⁸⁾ 일부

미당 서정주는 1915년 5월 고창군에서 출생하여 2000년 12월에 타계할 때까지 고창을 배경으로 한 토속적이고 민심을 대변하는 시작품을 발표했다. 서정주는 유치환과 함께 생명과 시인으로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그의 직설어법은 오히려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또한 그의 시작품의 정신적 배경이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하되 불교적 색채를 가미하여 그의 작품은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이러한 그의 작품세계를 그리기 위해 그의 생가와 선운리의 질마재를 무대로 한 시집 『질마재신화』의 배경이 지금까지 전북 고창에 고스란히 보존해 놓고 있다.

시인 서정주는 시집 『질마재 신화』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설을 모아 시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데 문학적 의의가 있다. 그 중 시 「내소사 대웅전 단청」에서 나타난 내소사에 관한 전설은 이러하다. 대웅전 내부의 단청을 색

18) 서정주, 『질마재신화』, 시문학, 1974. p.46.

칠하기 위해 불호랑이가 새 한 마리로 변해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을 몰래 본 동승(童僧) 때문에 일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의 불심(佛心)을 기리기 위해 “내생(來生)에나 소생(蘇生)하라고 절 이름을 내소사(來蘇寺)라고 했다”하여 지금까지 내소사라 불려진다고 한다. 실제로 소래사였던 이름이 언제부터 내소사로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내소사가 가지고 있는 전설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든 그곳에 머무는 부안인이든 아무 상관없다. 무엇보다 그곳은 속세, 인간세상과는 다른 은둔의 공간이자 이상향의 공간이 되고, 더는 세상을 떠나고자 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내소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모르게 발길이 내소사로 향한 날
 인적도 드물고 산새 소린 적막한데
 마침 예불을 마친 노스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맞아주시네

마주치는 눈과 눈은 끌듯 나를 이끌어
 산방에 들앉혀놓고선 이윽하기만 한데
 차면 넘치는 것이 인간사이던가
 견잡을 수 없이 쏟아져나오는 이 눈물,

- 박형진, 「내소사에서」¹⁹⁾ 일부

“나도 모르게 발길이 내소사로 향한”다. “차고 넘치는 것이 인간사”라는 것을 알지만, 딱히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욕심을 안다. 내소사에 가서 지나온 자신의 돌이켜보면, “견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내 것과 남의 것이 분명한 세상에서 내소사는 담이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관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관조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무조건 크

19) 박형진, 『바구니 속 감자쥬는 시들어가고』, 창작과비평사, 1994. p.132.

고 화려한 빛을 내는 것이 아닌 조용히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내소사는, 빠르지 않게 느릿한 걸음으로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4. 시사(詩社)의 격조가 남아있는 공간

- 부안읍·변산면 일대



▲ 신석정의 고택으로 가는 길에 그려진 벽화이다.

1) 부안읍 선은리

부안읍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공원 안 내판과 함께 신석정의 시화를 볼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 그의 고택을 찾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부안을 대표하는 문인이니만큼 신석정은 현대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고장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예로부터 부안읍에는 시사(詩社)가 있었고, 지금도 그 유습이 전해져 공회당 같은 데 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읊기도 한다는 말이 이해되는 모습이다²⁰⁾.

부안의 대표시인 신석정은 1907년에 부안군 동중리에서 태어나 1924년 《조선일보》에 시 「기우는 해」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고, 1931년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1974년에 타개하기까지 한국문단의 주요 문인으로 위치를 담당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국의 빼아픈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굴하지 않고 지조있는 삶을 영위한 저항시인²¹⁾이었던 서정주는 목가적인 서정시를 발표하면서 그는 시문학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조용한 어조로 잔잔하게 읊조리게 하는 그의 작품은 시문학이 가질 수 있는 리듬적인 요소가 함유되어 그 시적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는 그런 그의 시적 성향을 함축하고 볼 수 있다.

20) 김학동, 『시인의 고향』, 새문사, 2000, p.262.

21) 이종근, 『전북문학기행』, 신아출판사, 1997, p.339.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나리면
평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가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 신석정의 고택 내부에서 〈청구원〉이라
양각되어진 목각편이 걸려있다.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옥 똑 따지 않으렵니까?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²²⁾ 일부

신석정의 고택은 부안군의 중심지인 선은리에 위치해 있다. 동중리에서 태어나 1954년 전주로 이사할 때까지 선은리에 있는 고택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생가는 노휴재(老休齋) 뒤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헐리고 그 옛 모습을 찾을 길은 없다. 그의 고택을 〈청구원(靑丘園)〉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원에는 측백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 목련, 산수유, 철쭉 등이 심겨져 있어 시인이 가지고 있던 시심(詩心)을 갖추게 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좁은 정원을 가득 채우는 은행나무 하나
선뜻 개인 하늘에 강물처럼 바람이 돌아나갈 때
금시 떨어질듯 위태로워라

- 신석정, 「은행나무 선 정원도」²³⁾ 일부

22) 신석정, 『춧불』, 대지사, 1952. p.22.

23) 위의 책, p.80.

그의 대표시집인 『촛불』(인문평론사, 1939)과 『슬픈 목가』(낭주문화사, 1947) 등이 이 청구원에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한다.

신석정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문학제가 개최되었다. 2007년 9월 청구원에서는 문학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 완산구 전북예술회관에서는 그의 유품과 육필시화, 시집 원본 등이 함께 전시되었다. 또한 그의 대표작품에 곡을 붙여 공연하는 '가곡의 밤'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 날 그의 문학성을 기리는 제 1회 촛불문학상의 첫 수상자로 이병훈 시인이 그 영애를 안았다.



▲ 시비는 시인의 정신을 기리는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세운다는 건립내용을 뒷면에 새기고 있다.

2) 변산면 대항리

부안읍에서 서해안 변산해수욕장 쪽으로 20km 정도 이동하면 변산면 대항리 해창에 석정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해창쉼터와 근접해 있는 석정공원에는 해안 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공원 내부에는 신석정의 시비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솟아있다.

산을 닮아
입을 다물어도
자꾸만 가슴이 뜨거워 오는 날을

소나무 성근 숲넘어
파도소리가
유달리 달려드는 속을

부르르 떨리는 손은
주먹으로 달래놓고

파도밖에 트여온 한줄기 빛을 본다.

- 신석정, 「파도」²⁴⁾ 일부

신석정의 시비 전면에는 그의 대표작품인 시 「파도」 전문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건립내용과 신석정시비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때 명예회장은 박종화시인, 부 명예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문인으로 서정주, 김동리, 박목월 등이라 하니, 그들과 함께 현대시문단을 대표했던 신석정의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추측할 수 있다.

3) 부안읍 봉덕리

부안군에는 시인 신석정 말고도 조선 중기 여류시인으로 이매창을 꼽을 수 있다.

1573년(선조 6년)에 태어난 이매창은 본명은 향금(香今)이고, 호는 매창(梅窓)이다. 시문과 거문고에 뛰어나 계생이라 불리면서 개성의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명기의 쌍벽을 이루었고,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 대표 여류시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아있는 그녀의 작품 중 시 「이화우」는 중고등 국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 문체가 안정되고 감성적이라 현대문학에서도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 이매창의 시비는 봉덕리 매창공원 내에 있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이매창, 「이화우 훗뿌릴 제」 전문

24) 위의 책.

배꽃이 질 때부터 늦가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이 별의 정서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운 입에게로 향하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위해 시문을 지어주던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라는 주가 달려있듯 정인을 떠나보내고 썼다는 것이 바로 이 시문이다. 즉, 매창이 유희경과 이별하고 지은 이 시문은 『가곡원류(歌曲源流)』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이별가 중 절창으로 꼽히고 있다. 유희경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1590년 무렵 부안을 지나가던 차에 매창을 만나 연정을 품었다고 한다고 그의 자서 『촌은집(村隱集)』에 전해진다.



▲ 서울로 돌아간 유희경이 부안에 남겨져 있는 매창을 그리는 시문이다.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보고
오동나무에 비뿌릴 제 애가 끊겨라.

- 유희경, 「매창을 생각하며」 전문

매창은 유희경과 다시 만났지만, 유희경과 헤어진 이후 10여 년 동안 마음을 주지 않고 기생의 생활을 해온 매창의 순정에 마음이 끌렸다고 후에 허균은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녀만의 감성으로 여성적 정서를 읊은 시 「추사(秋思)」, 「춘원(春怨)」, 「견회(遣懷)」, 「증취객(贈醉客)」, 「부안회고(扶安懷古)」, 「자한(自恨)」 등이 유명하다. 그녀가 죽은 후 그가 지은 수 백편의 시들 중 시 58편을 모아 목판에 새겨 문집인 『매창집』을 개암사에서 간행하였다. 그녀는 시문뿐만 아니라 가무와 현금에도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어서, 그녀를 흠모한 당대 많은 문인들이 그녀를 기리는 시문을 짓기도 했다. 특히 허균의 『성소부부고』에도 이매창과 시문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녀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지은 시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복숭아를 흠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흠쳐서 인간무리를 두고 떠났네.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비취색 치마엔 향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사꽃 필 때 쫓이면
 그 누군가 설도의 무덤 곁을 지나려나

- 허균,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 전문



37세의 젊은 나이에 타개한 이매창의 묘는 현재 부안읍 봉덕리에 있다. 봉덕리 공동묘지였던 이곳 이매창의 묘에는 그녀가 생전에 늘 곁에 두었던 거문고와 함께 묻었다고 하여 한때 매창이뜸이라 불렀다고 한다.

▲ 허균은 매창의 죽음과 문인으로 서의 그녀를 기록하고 있다.

이화우 부르다가 거문고 비껴두고
 등 아래 홀로앉아 그 누구를 생각하는지
 두 뺨에 젖은 눈물이 흐르는 듯하구나.

라삼상(羅衫裳) 손에 잡혀 몇 번이나 찢었으니
 그리던 운우(雲雨)도 스러진 꿈이 되고
 그 고운 글발 그대로 정은 살아남았다.

- 이병기, 「매창뜸」 일부



지금 매창의 묘는 매창공원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묘 둘레를 그녀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그녀를 기리는 문인들의 시비들이 둘러 세워져 있다. 마치 그녀가 살아있던 때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지 않게 그녀의 시문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원 전체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꾸며져

▲ 이병기는 매창이 세상을 떠난 지 350여 년이 흐른 후 부안을 찾아 추모의 시를 적었다.

있는데, 이처럼 매창의 시문은 부안군을 상기할 만큼 그 고장의 정신적 지주로 주민들에게도 간직되고 있다. 매년 음력 4월 5일에는 매창묘소 앞에서 ‘매창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매창공원에는 부안의 명창인 이중선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전라북도 부안의 문학공간이 가진 특징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공간성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경향에 속하는 작가 및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사에 있어서 자연혜택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공간이다. 부안은 호남평야와 변산 지역, 그리고 서해가 고루 어우러져 있다. 반농반어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특히 변산반도는 부안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과 천혜의 자연혜택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그 자연혜택이 가득한 변산반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배준석의 수필 「구름을 두드리다」, 정양의 시 「개펄」, 박형진의 시 「상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있는 격포리의 채석강과 적벽강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문인수의 시 「바다책, 채석강」, 이순원의 소설 「은비령」, 송수권의 시 「여름 낙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부안군 벽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부안영상테마파크와 보안면 우동리에 있는 반계유형원 유허지가 부안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둘째, ‘내생을 위해 소생’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다. 해구 두타스님의 원력에 의해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창건된 변산의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소소래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실되었다가 조선 인조 때부터 다시 중건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내소사 대웅전의 단청에 관한 전설을 내용으로 한 서정주의 시 「내소사 대웅전 단청」에는 불심(佛心)을 기리기 위해 “내생(來生)에나 소생(蘇生)하라고 절 이름을 내소사(來蘇寺)라고 했다”라는 절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내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학작품으로는 정지상의 시 「제변산소래사」, 김시습의 시문 「내소사」, 김용택의 시 「내소사 가는 길」, 서정주의 시 「내

소사 대응전 단청], 박형진의 시 「내소사에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시사(詩社)의 격조가 남아있는 공간이다. 부안을 대표하는 현대문인 신석정의 고택과 시비가 남겨져, 고장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부안읍 선은리에는 신석정이 동중리에 태어나자마자 이사를 한 고택 〈청구원〉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 8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변산면 해창에는 석정공원이 조성되어 그의 시 「파도」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다. 또한 부안을 대표하는 조선 중기 여류시인 이매창을 기린 묘와 시비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573년(선조 6년)에 태어난 이매창은 37세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그녀의 벗이자 위안이었던 거문고를 함께 묻은 묘가 매창공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공원에는 매창의 시비뿐만 아니라, 그녀를 기리는 유희경, 허균, 이병기 등 문인들의 시가 새겨진 시비들이 세워져 있다.

문학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은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전달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문학적 상상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그 문학작품이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작가와 독자와의 문학적 인식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빠르고 화려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문학인들이 우려했던 ‘문학의 위기’는 지나친 기우(杞憂)가 되지 않을까. 언어활동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신활동을 계속 유도해 낼 수 있다면, 문자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의 영역도 디지털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곳곳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김수복,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 김학동, 『시인의 고향』, 새문사, 2000.
- 문인수, 『쉬』, 문학동네, 2006.
- 박형진, 『바구니 속 감자씨는 시들어가고』, 창작과비평사, 1994.
- 배준석, 『구름을 두드리다』, 문학관, 2002.
- 서정주, 『질마재신화』, 시문학, 1974.
- 송수권, 『별 아래 잠든 시인』, 문학사상사, 2001.
- 신석정, 『촛불』, 대지사, 1952.
- 안남일, 『기억과 공간의 소설 현상학』, 나남출판사, 2004.
- 이순원, 『은비령』, 생각의 나무, 2005.
- 이종근, 『전북문학기행』, 신아출판사, 1997.
- 전북문학지도 간행위원회, 『땅은 바다를 안고』, 동방미디어, 2004.
- 정 양, 「개펄」, 《현대문학》 558호, 2001.6.
- 최혜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지성사, 1999.
-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